

민주당 9년만에 집권 '흐뭇'...국민의당 구심점 잃고 '흔들'



축배 '민주'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추미애 대표 등이 '엄지 척' 포즈를 취하고 있다.



쓴잔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19대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지지율 상승 '선방'...바른정당·정의당 '선전'

정국 안정·개혁입법 당면 과제...보수 주도권 싸움 예고

대선 정당별 득실

제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각 정당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2007년 이후 9년 2개월여만에 집권여당의 지위를 갖게 된 반면 국민의당은 당내 최대 지지기반이었던 호남에서도 큰 득표를 차이로 패하면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 청와대와 함께 정국을 안정시키고 개혁과제를 관철해야 하는 '운명공동체'로서 탄탄한 당정관계 정립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해 국회의원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했지만, 선거 패배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지원 당 대표 등 지도부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하면서 당이 구심점을 잃고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붕괴 위기에 처했던 보수층과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에서의 보수정당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가 비록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자리 수였던 당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등 선방했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

면서 계파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정당은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가 6.8%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선거 막판 지지율을 끌어올린 데 이어 새로운 보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래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의원수 20명으로 간신히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 명이라도 더 탈당하는 경우 교섭단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향후 정국에서 자유한국당과의 보수진영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화 이후 진보정당 사상 최대 득표에 성공했다. 애초 목표했던 '두 자릿수 득표율'에는 실패했지만, 유의미한 득표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개혁성향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범여권 정당으로서 협조관계를 형성할 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

안 "좌절 않겠다...재충전 시간" 박지원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

국민의당 곧 비대위 구성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0일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지도부가 사퇴하고 새로운 모습의 당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10년 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선대위 해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거취와 관련해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여러분 저는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겠다. 패배의 경험을 한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중 의원직을 사퇴한 안 대표는 당분간 국내에서 머물며 정국 구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도부 사퇴에 따라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원내대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주 내에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잇달아 국민의당과 통합론을 제기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종걸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방송에 출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생각도 비슷한데 어떤 계기에 의해 감정적인 분당이 됐다"며 "(안철수 후보 축과) 당연히 통합하고 연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영선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의당과는 형제당"이라며 "국민의당은 대통령 임박에서는 '내 당이다'라는 심정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당 내외에서는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명단이 돌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론도 제기되고 있다. 60석의 정당으로 몸집을 불려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세성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다 호남 민심의 반발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장흥 출신의 임종석 전 의원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호남 인재 중용에 나서면서 국민의당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당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다음 총선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국민의당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상황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잇달아 국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500억·한국 420억·국민의당 460억 득표 15% 이상 전액 보전...바른정당 50억·정의당 42억은 못받아

선거비용 얼마나 보전받나

19대 대선의 선거비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총 500억원 가량을 썼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420억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약 460억을 각각 지출했다고 각 정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완주하는 후보는 자신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대 509억여원까지 사용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13명의 원수 후보 중에서는 문 대통령과 홍 후보, 안 후보 측만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서 선거에 사용한 비용을 대부분 보전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포함한 나머지 후보 10명은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보전 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15% 획득 시엔 절반을 받을 수 있지만, 10%에 못 미치면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바른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 50억가량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은 총 42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 /박지경기자 jkpark@

文 최측근 이호철 "자유 위해 떠난다" 출국 직전 SNS 글 "삼철"은 오해...정권교체로 내 일 다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취임일인 10일 "자유를 위해 먼 길을 떠난다"라며 출국 소식을 알렸다.

윤승호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수석이 남긴 글을 소개했다.

이 글에서 이 전 수석은 "마침내 정권교체가 되고 제가 존경하는 노변(노무현 전 대통령), 문변(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대통령이 됐다"며 "살아오면서 이만만 명이 어디 있겠나.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철"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청

와대 민정수석을 지칭)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문 대통령이 힘들고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곁에서 묵묵히 도왔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정치적 반대자들은 '삼철'을 공격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증폭시켰다. 이런 비난과 오해가 옳다거나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괜찮다.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은 "정권교체는 이뤄졌고, 제가 할 일을 다 한 듯하다. 마침내 저도 자유를 얻었다"며 "저는 권력이나 명예보다 자유를 위해 왔고, 저의 자유를 위해 먼 길을 떠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